



# 실습을 마치며...

김은혜 / (사)한국포장협회 포장인력양성팀

그 동안 선배들의 실습을 부러움으로 보아 오던 나는 막상 나에게 주어진 4주간의 실습에 대한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실습 첫날 잠을 설친 나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눈을 떠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 실습하는 곳이야’라는 생각이 나를 더욱 부지런하게 만들었다.

첫날, 사무실에 안으로 들어선 나는 전무님, 부장님, 언니들 그리고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63빌딩과 높은 건물들, 끊어질 줄 모르고 이어지는 차량들....

시골집이나 학교에서의 여유롭고, 자유스러운 모습들만 보아오던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다.

그러나 이런 느낌도 잠시.

풍채 좋으신 전무님은 간간히 농담 섞인 어투로 풍채만큼이나 푸근한 이미지를 심어주셨고, 부장님 역시 이런저런 삶의 경험담과 이야기들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셨다.

무엇보다도 가장 고마운 건 옆에서 나를 단

지 실습생이 아니라 동생처럼 대해준 초혜언니, 해진언니, 현정언니였다.

언니들로 인해 나는 이곳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편히 생활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나의 낯선 어색함이 물러갈 때쯤, 본격적인 실습이 시작되었다.

학교에 있을 때 몇 군데 업체 견학이 고작으로 별다르게 갖는 관심은 없었다. 게다가 업체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었던 나로서는 규모가 작은 공장을 뺏하며 ‘이렇게 작은 공장에서 뭘 해, 볼 것도 없잖아’라는 고정관념을 늘 가지고 있었다.

부장님은 업체를 방문하는 기회가 생기면 항상 함께 동행하셨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그런 고정관념들이 어리석었음을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었다.

부장님과 다녀 본 업체들은 모두가 영세했다. 하지만 그 속에 잠재된 능력이나 삶의 의지는 어느 대기업 못지 않게 뜨거웠다.

이 찌는 듯한 더위에도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하고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대

부분이었다. 순간 나는 편하기만을 고집했던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내 위치, 내 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가에 대해 새삼 느끼게 되었다.

업체를 방문할 때마다 부장님은 공장까지 들러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으셨다.

학교에서 늘 보고, 듣고, 하던 것들이라 더 이해하기 쉬웠지만 내가 직접 가동되고 있는 현장을 보며 배우는 것은 또 다른 묘미가 있었다.

부장님과 이러한 현장 위주의 업체를 방문했는가 하면 언니들과는 해태제과 포장디자인팀, 파렛트·물류 협회 등 조용하고 깔끔히 정돈된 사무실을 다니며 여러 사람들과 만나 인사도 나누었다. 그 중에는 우리 학교를 졸업한 선배도 있어 그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해태제과 포장디자인팀에서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신제품을 선보여 주셨다. 방금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제품을 누구보다 먼저 손에 받아 든 느낌!! 직접 받아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제품의 설계부터 보완, 완성까지의 단계를 과장님께서 직접 제품을 보며 설명까지 해주셨다. 학교에서 교수님께 배우던 내용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누군가 수퍼에서 “이 과자의 뚜껑이 왜 이렇까?”라고 궁금해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과장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업체를 방문하면서 포장과 포장업체들에 대해 다시 한번 뒤돌아 볼 수 있게 될 때쯤, 이미 4주라는 실습기간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나는 4주라는 짧은 기간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아침 일찍 지하철 안의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틈에 끼여 허둥대면서도 그들과 같이 나 또한 이 사회의 한 일원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느끼며, 잠시나마 학생의 임무에서 벗어나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면서 어른들의 ‘학생 때가 좋지’ 하는 말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 감사하며, 땀흘리며 일하시던 근로자들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모든 일에 대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4주간의 (사)한국포장협회에서의 실습은 나에게 큰 경험이었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

**신제품 및 업체 소개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835-9041**